

목련

이제 숨 누빈 점퍼랑 니트를
슬슬 창룡 안에 접어두어도 되는
시간이 되었다

매절 아저씨가
팔다 남은 슈퍼믹스 오리지널 팝콘 한 봉지를
탈탈 털어
가지 위에 남김없이 올려놓았다

속은 통통하게 팍 채우고
비치지 않게 풀솜 몇 장씩 겹쳐서
홍질로 마무리한 봉오리 끝
서툰 바느질에
그만
누런 꽃밥이 등성등성 빠져나왔다

몇 줌 따다가
입 안에 얼른
털어 넣고 싶다

잡히는 대로 뜯고
한입 삼키면
크게 부푸는 볼

앞니에 통
어금니에도 통
마구 구르다가

토도독
입 안에서 터지는
하얀 꽃다발

-본문 시 중에서

발간등록번호
51-7010507-000001-10

두텁바우

제21집

두텁바우
제21집

용산도서관

2011년 용산도서관
창작시 입상작 모음집